

전통의 영광과 향운으로 빛나는 10년

황금산, 보물산의 새 역사를 펼쳐주시려

봄바람에 두그루의 전나무가 나부. 선레이다.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영생의 모습으로 계시는 금수산태양궁전 가까이 있고 주작봉마루의 항일선열들이 바라보는 화성담, 북받은 대지에 일떠설 인민의 리상거리, 행복의 보금자리의 첫기둥으로 심어진 두그루의 전

나무. 경애하는 원수님의 손길에 떠받쳐 뿌리내리고 그이의 열렬한 조국애를 자랑분으로 하여 있새도 더더욱 푸르른 두그루의 전나무를 보며 공화국인민은 온 나라를 수리화, 원림화하기 위하여 바쳐오신 절세위인의 애국헌신의 려정을 다시금 되새긴다.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의 뜻을 받들어 앞으로 10년안에 모든 산들을 푸른 숲이 설레이는 보물산, 황금산으로 전변시키자는 것이 우리 당의 확고한 결심이며 의지라고, 전당, 전군, 전민이 산림복구전투를 힘있게 벌려 조국의 산들에 푸른 숲이 우거지게 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산림복구전투는 자연과의 전쟁이며 내 나라, 내 조국의 부강발전과 후손대대의 번영을 위한 최대의 애국사업이라고 밝혀주시는 경애하는 그이께서는 온 나라를 수리화, 원림화하기 위한 애국헌신의 려정을 이어가시였다.

산림복구전투의 병기창인 양묘장들을 훌륭하게 꾸려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손수 조국 땅에 나무를 심으시며 인민의 가슴마다에 모진 광풍에도 흔들리지 않을 애국의 뿌리를 깊이 묻어 주시였다.

주제106(2017)년의 식수절 만경대혁명학원 원아들과 함께 나무를 심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모습은 공화국인민의 마음속에 감동깊은 애국의 와 더불어 길이 새겨져있다.

애국주의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조국땅의 나무 한그루도 소중히 여기고 그것을 가꾸는데 자기의 땅과 지성을 바치는 충고한 정신이라고, 나무를 심기 전에 깨끗한 땅과 물을 뿌려야 한다고 뜨겁게 말씀하신 경애하는 원수님.

마음속에 애국을 묻으라

푸른 숲은 나라의 귀중한 자원이며 후손대대에 물려줄 재부이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어버이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받들어 나라의 모든 산들을 수리화, 원림화하기 위해 끊임없는 로고와 심혈을 기울이시고 이 땅에 헌신의 자욱을 새겨 오시였다.

김정은원수님께서 사회주의적애국주의의 최고정화인 김정일애국주의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 인민의 마음을 뜨겁게 울려준다.

김정일애국주의는 내 나라, 내 조국의 풀 한포기, 나무 한그루까지도 다 자기 가슴에 품어안고 자기의 더운 피로 뜨겁게 덥혀주는 참다운 애국주의이다.

인민의 마음속에 숭고하고 열렬한 애국주의의 참뜻을 새겨 주신 경애하는 그이께서는 주제104(2015)년 2월 26일에 불후의 고전적로작 《전당, 전군, 전민이 산림복구전투를 힘있게 벌려 조국의 산들에 푸른 숲이 우거지게 하자》를 발표하시어 온 나라를 수리화, 원림화하기 위한 위대한 구상을 펼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우리는 후대들에게 벌거숭이산, 황산을 남겨주어서는 절대로 안된다고,

이 땅에 헌신의 자욱을 새겨 오시였다. 예로부터 산과 들에 나무가 울창하고 백화민발하여 금수산으로 불리운 이 나라의 산림이 고난의 행군을 겪으며 황폐화된 지경에 이르게 된것이 너무도 가슴아프시어 산림문제를 놓고는 더이상 물러설 길이 없다고, 산림정원을 이대로 두고서는 누구도 나라의 주인이라고 자부할수 없으며 애국에 대하여 말할수 없다고 절절히 말씀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이시이다.

애국이란 무엇인가? 이 물음을 대할 때면 경애하는

원수님의 손길에 떠받쳐 뿌리내리고 그이의 열렬한 조국애를 자랑분으로 하여 있새도 더더욱 푸르른 두그루의 전나무를 보며 공화국인민은 온 나라를 수리화, 원림화하기 위하여 바쳐오신 절세위인의 애국헌신의 려정을 다시금 되새긴다.

산림복구전투는 자연과의 전쟁이며 내 나라, 내 조국의 부강발전과 후손대대의 번영을 위한 최대의 애국사업이라고 밝혀주시는 경애하는 그이께서는 온 나라를 수리화, 원림화하기 위한 애국헌신의 려정을 이어가시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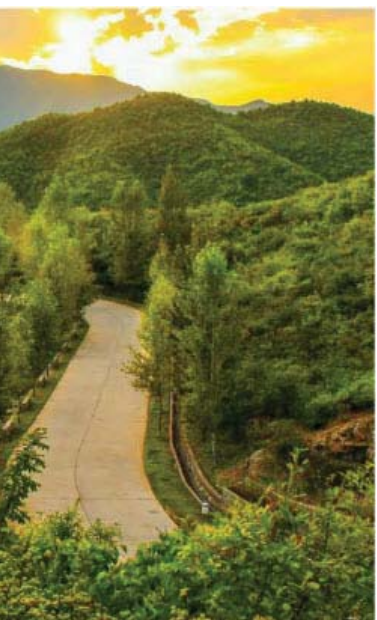
산림복구전투의 병기창인 양묘장들을 훌륭하게 꾸려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손수 조국 땅에 나무를 심으시며 인민의 가슴마다에 모진 광풍에도 흔들리지 않을 애국의 뿌리를 깊이 묻어 주시였다.

주제106(2017)년의 식수절 만경대혁명학원 원아들과 함께 나무를 심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모습은 공화국인민의 마음속에 감동깊은 애국의 와 더불어 길이 새겨져있다.

애국주의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조국땅의 나무 한그루도 소중히 여기고 그것을 가꾸는데 자기의 땅과 지성을 바치는 충고한 정신이라고, 나무를 심기 전에 깨끗한 땅과 물을 뿌려야 한다고 뜨겁게 말씀하신 경애하는 원수님.

그날 경애하는 그이께서는 식수사업에서 중요한것은 나무를 몇대 심었는가 하는데 있는것이 아

니라 몇대를 살렸는가 하는데 있다고 하나하나 알기 쉽게 가르쳐 주시며 구멍이파기로부터 물주기, 흩다짐에 이르기까지 장시간 나무심기를 직접 하시였다. 나무를 심기 전에 깨끗한 땅과 물을 뿌려야 한다고 뜨겁게 말씀하신 경애하는 원수님. 그렇듯 가장 순결하고 고결한 애국심을 지니시고 올해의 식수절



락월한 사상리론의 거장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은 천재적인 예지와 비범한 사상리론활동으로 위대한 수령님들의 청년중시사상과 로신을 계승하고 더욱 심화발전시키신 탁월한 사상리론가이시며 주제적청년운동의 위대한 령도자이시이다. 청년문제가 민족자주위업수행의 운명, 사회주의의 진도와 판권되는 중차대한 문제임을 깊이 통찰하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수많은 불후의 고전적로작들에서 청년들이 사회주의건설에서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을 명확히 밝히시고 정력적인 령도로 이 땅위에 청년강국의 자랑스러운 년대기를 펼쳐가고계신다.

그이께서는 새로운 주제100년대가 시작되는 첫해에 발표하신 불후의 고전적로작 《청년들을 혁명의 계승자로 훈련시키기 위한 사상교양사업을 강화할데 대하여》에서 청년들은 강성국가건설의 돌격대이며 김일성민족의 미래를 떠메고나갈 앞날의 주인공들이라고 청년들의 지위와 역할을 명백히 밝혀주시였다. 그리고 주제혁명의 새시대의 요구에 맞게 청년들을 사상과 신념의 강자들로 더욱 튼튼히 육성하기 위한 파업과 방도들도 명시하여주시였다.

주제101(2012)년 8월에는 전선시찰의 길에서 청년들에게 참가자들과 과 나라 청년들에게 사랑과 믿음의 축하분도 보내주시였다. 이렇듯 청년들을 나라의 믿음직한 후배대, 사회주의건설의 최후대, 민족부대로 내세우시는 그이의 청년중시사상은 공화국을 세상에 돌도 없는 청년대강국으로 일떠세우고 그 위력을 비상히 높여나갈수 있게 하고있다.

청년들이 발휘한 소행이란 더 소중히 여기시는 그이께서는 불후의 고전적로작들인 《백두전구에서 영웅정년신화를 창조한 청년들격대원들의 투쟁정신을 따라배워야 한다》, 《백두산영웅정년발견소는 자랑스러운 정년대기념비, 정년강국의 상징이다》에서 저기 바라보이는 저 높이 쌓인 언덕은 우리 청년전위들의 불타는 애국충정성의 루적이며 1호발전소 언덕의 높이는 영웅청년을 가지고있는 우리 조국, 청년강국의 존

엄의 높이라고 하시면서 청년들의 위훈을 값높이 내세워주시였다. 청년들이 강하면 국가도 강하고 군대도 강하며 세상에 무서울것이 없다는것이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뜻이다.

하기에 그이께서는 언제인가 청년강국은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에게 무한히 충실한 강력한 청년전위조직과 수백만의 청년대군을 가지고있으며 그의 선봉대적, 돌격대적역할에 의하여 약동하는 젊음으로 비약하며 부강번영하는 나라라고 밝혀주시였다.

지난해 4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청년동맹 제10차대회에 보내신 려사적서한 《혁명의 새 승리를 향한 려사적진군에서 사회주의애국청년동맹의 위력을 힘있게 떨치라》는 공화국의 수백만 청년들을 부강조국건설의 장엄한 투쟁으로 힘차게 불러일으키는 위대한 애국의 기치이다.

본사기자 주일봉

본사기자 주일봉

본사기자 주일봉

청년강국의 휘황한 진모를 밝혀주시여

시조

사랑의 자욱우에 꽃피는 일화 (1)

화가 김영일

선뜻 붓을 들수 없었다

낮에 보면 해빛속에 빛나 백두대지의 꽃피는 선경이요 밤에 보면 하늘의 별들이 내려앉은듯 창가마다 불빛도 황홀해라

산천경계 수려한 아름다운 자연경관 하늘명의 조화로 이루어진다 하였지만 백두의 정기어린 삼치연 이 땅에 한쪽의 명화란듯 솟아난 별천지 이는 원수님 펼쳐주시 눈부신 절경 기적의 선경

아름다운 이 전경 화폭에 담고져 포태동전망대에 오르니 선뜻 붓을 달릴수 없구나 아, 우리 원수님 바쳐오신 그 로고 눈가에 뜨거워 목이 메여와

운진한 포태산의 흰눈우에 솟아난

바로 여기 이곳이 아니더냐 옛 모습 찾아볼수 없는 회한한 별천지 그처럼 정겹게 바라보이며 원수님 환하게 미소를 지으신 오래도록 자리를 뜨지 못하신...

아버지, 어머니를 따라 평양에서 살다 삼치연으로 온 소녀 그 포태 아이들은 자랑을 참치 못하는 법 포태산기슭의 아담한 살림집 이사는 첫날밤 평양의 동무들께 심중의 격정 터치신 우리의 아버지 자랑의 편지

전나무숲 푸른 정경우에 비친 청춘을 자랑하는 산간도시여 이 천하장관 화폭에 담고져 왔건만 오히려 그 절경앞에 무색해지누나

붓으로야 어이 다 그리랴 어찌 작은 화관의 한장의 종이에 다 담으랴 산간도시 포태동의 아름다운 전경 아, 우리 원수님 이 땅에 세상에 돌도 없는 명화 펼쳐주셨어라

그리운 동무들 내 이야기 들어봐 백두산이 바라보이는 우리 학교 전나무숲에 동화의 그림처럼 솟아 있단나 처음 들어서는 낯선 학교지만 왜 그런지 정이 록 드는게 아니겠니 교실창밖의 서리꽃 얼마나 교운지 몰라

이 누나에게 뒤질세라 유치원에 다니는 동생도 자랑이야 놀이방 잠방 정말 멋지다고

어떤 날은 글씨 집에도 안가고 놀음 팔러 어머니가 땀겨나 뺨단나

의사인 어머니도 마음이 흥그러워 포태동종합집료소 제일이라 자랑하고 아버지도 만면에 웃음 가득 삼치연감자가루공장을 자랑해서

그야말로 모두다 자랑이야 학교자랑 유치원자랑 일터자랑 하긴 우리 집만도 아닌걸 포태명 사람들 누구나 할것없이 새집자랑 마을자랑 꽃처럼 피우는걸

정말 자랑이란 할수록 끝이 없는것인지 터놓자니 편지의 끝 맺을수 없고 편지의 끝 맺자니 터놓지 못한 아쉬움 차차리 평양의 정든 동무들아 모두 우리 집에 올수는 없겠니 아버지원수님 다녀가신 포태명 원수님 세워주신 제일 좋은 우리 동네 꼭 다녀가렴 언제든지 주소는 따로 쓰지 않겠어 《평양집》이 어딘가 하면 다 알거던

